

육계 자조금 사업 활성화 방안

자조금 활용방안 모색에 집중을...

육계 자조금!! 위기의 육계산업을 극복 할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 일까? 현 육계산업의 특성상 자조금 사업의 시행은 참으로 많은 난재를 안고 있다. 시작하기도 전부터 서로 잣밥만 탐내는 양상을 빚었다.

지난 12월 추위와 전남·북 폭설로 그 어려운 시기에도 자조금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90명이상이 모여 재적대의원의 3분의 2가 충족되었는데도 유희를 시켜 4개월 이상 표류하게 한점부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.

순수하게 운영되어야 할 모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서로의 이해관계만 따진다면 결코 잘 운영 될 수 없을 것이며, 양계협회, 계육협회, 농협 모두가 도와주고 이해해야 함에도 영역 다투기만 하는 것처럼 보여서 모양이 좋지 않고 또 선출된 대의원들은 그 중에 감투부터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 참으로 어렵다.

우리가 보다 잘 살고 윤택한 생활을 하고자 자조금을 거두고 실행하고자 하는데 모두가 자중하여 정말 능력 있는 리더를 선출해서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고 수입 산물에 대처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.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모두 한발 물러서서 심사숙고 하여 능력과 추진력이 있는 분들이 관리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면 한다.

이번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된 분들 모두 훌륭



이 준 동
충북도지회장

한 인물들인 만큼 각 단체들간의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업계의 발전을 위해 함께 상생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. 또한 자조금 활용 방안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. 자조금으로 닭고기 먹으라고 홍보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되며, 연구 용역을 맡겨서라도 수입 닭고기와의 차별화 및 역수출 방안, 농가 생산에 대해 소비자 신뢰도 구축방안 육계농가와 계열화 회사의 상생의 길 등 육계농가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.

다시 한번 강조를 한다면 모두가 한발 양보하여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육계 자조금이 조기 정착 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. **양계**